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李鍾容
印刷人 張玉煥
編輯局長 田根澤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大山빌딩 3층)
☎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밀수황기 공매입찰 유보

농림수산부, 관세청에 폐기처분 요청

지난해 압류한 밀수황기 70톤을 무작정 매각해 국내 생산농가의 집단 민원을 야기시켰던 관세청이 또다시 녹용, 황기 등 1백35톤 규모를 매각 하려하자 관계기관과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중국산 황기 30톤을 비롯 녹용 0.8톤, 백출 4.8톤, 지황 19톤 등 밀수 한약재 1백35톤을 한국보훈복지공단에 위탁,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7회에 걸쳐 매각키로 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부는 생산농가 보호와 집단민원 방지 차원에서 황기의 경우 매각을 유보해 줄 것을 관세청에 요청했다.

농림수산부는 유보 요청서에서 『황기는 국내 생산기반 확충과 생산농가 보호 및 가격 등 수급 안정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정부가 고시한 수급 조절 대상 품목의 하나』라며 『밀수 황기가 공매되어 시중에 유통될 경우 가격 폭락 등 유통질서 문란과 생산농가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림수산부는 가능하다면 폐기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한국생약협회는 최근 밀수 황기 유통으로 생산농가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황기 30톤이 시중에 풀릴 경우 농민들의 피해는 물론 생산의욕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매각을 중단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2백50여명의 소비자들이 참여했다.

약초 생태 관찰

일반인 관심높아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는 지난달 21일 경기도 양평군 소재 중미산에서 자연산 약초 서식지 답사 및 채취행사를 가졌다.

경희대 한의대 안덕균 교수를 초빙 다양한 생약초의 생태를 관찰하고 직접 채취도 한 이날 행사에는 2백50여명의 소비자들이 참여, 평소 우리 생약재에 대한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둥굴레(황정), 전호, 냉초, 삽주뿌리, 딱총나무, 산작약, 하늘말나리, 하고초(꿀풀), 쥐오줌풀 등 귀에 익숙한 것에서 부터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의 약초까지 그 생김새를 관찰하고, 직접 채취한 나물로 쌈을 싸먹기도 하면서 참가자들은 모처럼 자연속에서의 여가를 즐겼다.

〈관련기사 3·4·5면〉

29개 수급조절 품목 완전 개방 움직임

오는 5월, 수급조절위원회의서 논의

국내 생약농업 육성과 생산농가 보호차원에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수급조절대상 한약재의 수입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놓고 수급조절위원회가 고심하고 있다.

완전개방이냐 아니면 영구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면서 계약재배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고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계몽교육을실시했다.

또한 밀수 한약재가 공매를 통해 매각되었을 경우 밀반입된 동종의 약재를 공매품에 끼워유통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실무 관청인 인천세관은 황기의 경우 공매를 유보해 놓은 상태이며, 『이를 다시 역수출하는 조건으로 조만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매각한 황기 70톤은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

또한 밀수 한약재가 공매를 통해 매각되었을 경우 밀반입된 동종의 약재를 공매품에 끼워유통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실무 관청인 인천세관은 황기의 경우 공매를 유보해 놓은 상태이며, 『이를 다시 역수출하는 조건으로 조만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매각한 황기 70톤은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급도를 높혀갈 것인가 또는 연간 1백톤 이상 부족품목 및 식품의약품 공용사용료보에 대한 우선 개방 후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인가 등 3개 안을 두고 수급조절위원회가 곧 열릴 예정이어서 이들의 결정사항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대해 업계관계자들은 『국내 약용작물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품목 완전개방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설혹 개방한다 하더라도 예시제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것.

농림수산부 통계에 의하면 95년 국내 약용작물 생산량은 4만1천9백80톤으로 90년 2만2천8백톤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동약령시축제

서울경동약령시협회(회장 윤영진)는 6월1일 제2회 서울 경동약령시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동대문구청이 후원하고 경동약령시협회(회장·윤영진) 주최로 열릴 이번 행사는 무료진료 및 투약, 한약재 썰기 경진대회, 국산및 수입 한약재 전시회, 불우 장학생 선발 격려금 수여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한편 약령시협회는 동대문보건소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하루 1시간씩, 의료법, 약사법, 대외무역 관리법 및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계몽교육을실시했다.

지면안내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 행사 이모저모 ……3면
◉화보 ……4·5면
◉세대별 보약 복용법 「남자보약」……8면

"늘 처음처럼 노력하겠습니다"

생산농가의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양질의 생약재 공급을 위해 태어난 국산한약재상설매장이
벌써 한 돌을 맞이했습니다.
늘 처음같은 마음으로 양질의 청정약재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